

‘전기차 시대’ 도래하면 정비업계 3곳 중 1곳 문 닫는다

광주 업체, 정비 기술·인력 태부족...2명 중 1명은 전문지식 없어 완성차 협력사 등 자동차산업 타격...정부·지자체 차원 대책 필요

광주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업계가 산업 구조 변화로 전기차 전환으로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전기차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 광주지역 자동차 정비업체 3곳 중 1곳은 사업을 접을 것으로 조사됐다.

정비업체 뿐만 아니라 완성차업체에 자체 등을 납품하는 지역 협력업체를 비롯해 엔진 관련 산업 등은 위기·소멸로 내몰려 매출 및 일자리감소 등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광주지역 자동차정비업 307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의 견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 정비업계는 엔진 관련 산업과 자동차정비업 등이 위기·소멸 산

업이 돼 생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광주시에는 1365개의 정비업체, 근로자 3793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지역 산업·학계 전문가 6인의 1대 1 심층인터뷰 및 광주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carpos) 회원사 중 307개 업체를 온라인 조사를 통해 자료를 만들었다.

실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업체의 운영기간은 '20년 초과'가 52.2%로 가장 많았고, 대표(사업주)가 직접 정비에 참여하는 비중은 98.1%에 달했다. 대표의 연령대는 '50대'가 56.5%로 가장 많았고, '40대' (27.3%), '60대 이상' (13.0%) 순이었다.

광주의 정비업계는 대표가 직접 일하는 구조로, 50~60대 이상이 70% 상당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는 달리 고전압 기반으로 구동돼 관련 전문지식이 필수라는 점에서 이들이 전기차 전환에 따른 전문성을 갖추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제작자의 83.2%는 전기차에 대한 구조의 기본은 알고 있으나, 그 중 49.8%는 전문적인 이해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들은 전기차 보편화에 대한 예상 시점으로 '10년 이내' (33.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5년 이내' (31.1%), '7~8년 이내' (24.2%) 순이었다.

지역 정비업계의 42.2%는 전기차 보급이 본인들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30% 이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30~50% 이내' (19.9%), '50% 이상' (18.0%)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는 등 전기차 전환에 따른 업계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시대 도래 시 주력정비업의 변경 의사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55.9%로, '적극 바꿀 생각이다'고 답한 곳도 11.2%였다.

하지만 이와 달리 '변경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32.9%에 달했고, 이들은 대부분 사업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차 전환이 이뤄지면 지역 정비업체의 30% 이상이 사업을 접을 수 있다는 예이다.

정비업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정비는 '오일 및 소모품류 교환' (83.9%) 압도적으로 높았다. '오일 및 소모품류 교환'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도 '30% 이상' (62.1%)이 가장 많았다. 내연기관 엔진 관련 정비가 업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내연기관 엔진이 사라지는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 사업 구조가 매우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시대 준비를 위해 사업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하 다중응답)은 '제작자의 재교육' (55.9%), '정책적 지원' (55.3%), '재정적 지원' (49.7%) 등 순이었다.

전기차 정비과정 훈련(인력양성) 시 가장 필요한 부분은 '고전압 안전관리 정비' (63.4%), '구동장치 정비' (37.9%), '고전압 충전장치 정비' (27.3%), '고전압 분배장치 정비' (26.1%)로 나타

났다.

이명수 광주인자위 사무처장은 "우리 지역 자동차전문정비업은 전기차 시대에 따른 산업환경의 급변, 인력의 고령화, 젊은 세대 유입의 단절 등 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왔으나 그 심각성은 아직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 지역인자위 등 인력양성기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실을 반영한 정비인원의 등록기준 완화, 자격기준 확대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지자체에 적극 요청해 급변하는 지역산업환경에 따른 맞춤형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인자위는 지난 9월 광주지역 친환경자동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해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호남직업전문학교(훈련전문기관) 등과 함께 훈련생의 교육, 채용지원 등의 업무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 제작자를 위한 훈련과정과 신규 인력양성을 위한 과정을 편성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정기 훈련과정으로 편성해 관련 과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수정테이프로 서류 위조”...대구은행 불법 계좌 1662건 개설

영업점 56곳서 114명 가담...자금 이체·주식 매매 등 실제 거래는 없어

지방은행 중 최초로 전국은행(시중은행) 전환을 노리던 DGB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1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사본을 하나 더 만들고, 이를 활용해 B증권사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취했다.

이들은 출력본에 기재된 증권사 이름이나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교체 다른 계좌 신청서로 '재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력본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계좌 명의인 정보가 실제 개설된 증권계좌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도 669건이나 발견됐다.

이들은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고객에게 출력본 활용을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직원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변경,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자금 이체나 주식 매매 같은 실제 거래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차의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

(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이 사고 배경이 됐다고 판단했다.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고객이 전자서명한 서류를 전산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출력할 수 있는 등 전산 통제가 미비했다.

사후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은행은 작년 4월 고객이 직접 기재하지 않은 인쇄 서류를 이용하거나 고객 휴대전화 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전 영업점에 유사 사례를 방지해달라는 공문만 발송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텔레파시 퀴즈 풀면 우대금리”

연 최대 6% 비대면 적금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비대면 전용 상품인 '텔레파시적금'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텔레파시적금은 영업점 방문 없이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과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은 정액적립식 기준 최대 연 6% 금리를 제공하며, 개인고객 1인 1계좌에 한해 최소 5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1년제로 가입 가능하다.

기본금리는 1년제 정액적립식의 경우 연 3.2% (자유적립식 연 3.0%)이며, 가입자 거래현황에 따른 우대금리 최대 연 0.8%포인트를 제공한다. 또 텔레파시 퀴즈 이벤트 우대금리 최대 연 2%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6% (자유적립식 연 5.8%)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텔레파시 퀴즈는 '오늘의 점심 메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와 같은 질문으로 이뤄져 있으며, 매일 2회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네가지 보기 중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문항을 선택한 고객



에게 매회 우대금리 연 0.1%포인트를 지급하며, 최대 연 2.0%포인트의 이벤트 우대금리 받을 수 있다.

박대하 광주은행 디지털기획부장은 "탄탄한 기본금리는 물론, 금융에 즐거움을 더한 '펀(Fun) 세이빙' 트렌드를 반영한 금융상품을 경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 7층 블랙야크 매장이 가을을 맞아 새단장을 마쳤다. 블랙야크는 15만원 이상 구매시 스카프를 증정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아웃도어 매장 새단장 기념 오픈행사

15일까지 구매금액별 사은품 26일까지 온라인 기획전도

광주신세계는 12일 가을을 맞아 등산복 등 아웃도어 매장을 새단장하고 오는 15일까지 리뉴얼 오픈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본관 7층 아웃도어 매장 전체 리모델링을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새단장한 브랜드는 코오롱스포츠, 노스페이스, 디스커버리, 내셔널지오그래픽, 아이더, 스노우피크, 네파, 아크테릭스, 파타고니아, K2, 블랙야크, 코닥, 아레나, 나이키스웨트 등 총 14개다.

광주신세계는 아웃도어 전 브랜드에서 10·15·20·30만원 등 구매금액에 따라 스카프, 티셔츠 등 사은품을 증정한다.

네셔널지오그래픽, K2, 네파는 10만원 이상 구매 시 양말을 증정하며, 코오롱스포츠는 텀블러, 보스턴백, 후드티셔츠를, 파타고니아는 업사이클링 상품을 증정한다. 또 아크테릭스는 30만원 이상 구매 시, 블랙야크는 15만원 이상 구매시 스카프를 증정한다.

온라인에서도 아웃도어 기획전을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신세계는 신세계 앱을 통해 오는 18일 블랙야크, K2가 참여하는 아웃도어 연합전을 라이브방

송을 통해 진행하며, 오는 26일 네파와 아이더가 참여하는 리뉴얼 오픈 특집 기획전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79.82(+29.74)
↑ 코스닥	835.49(+18.37)
↓ 금리(국고채 3년)	3.940(-0.013)
↓ 환율(USD)	1338.50(-0.20)

김종덕 광주본부세관장 취임

광주본부세관 신임 세관장에 김종덕(사진)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이 취임한다.

광주본부세관은 13일 김종덕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이 신임 광주본부세관장으로 취임한다고 12일 밝혔다.

김 신임 세관장은 강원 강릉 출신으로,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무대(57기) 관세과를 졸업했다. 이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와 한국해양대 물류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다.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한 김 세관장



은 부산세관 통관지원과장,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인천세관 심사국장,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장, 인천세관 특송통관과장,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세관장은 13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공식 임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xer@



전남농협, 전국체전 성공 기원 플로깅 행사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12일 농협 목포신안시군지부와 함께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농협과 함께하는 플로깅'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목포시의 평화광장 일원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박종탁 본부장과 고영인 목포신안시군지부장, 고희준 목포원예농협 조합장 등 임직원 70여명이 함께했다.

농협은 올해 임직원들의 플로깅 1만 시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플로깅은 전국체전을 홍보하고 깨끗한 목포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목포 달맞이공원에서도부터 평화광장을 지나 영산교까지 진행됐다.

고영인 지부장은 "농협은 목포시 금고은행으로서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및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탁 본부장은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범농협 임직원들의 바램이 전국체전 선수들과 응원단, 목포시민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